

DA EUN CHUNG

CV

정다운 Daeun CHUNG

학력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석사 수료, 서울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조형미술과 졸업, 서울

수상

2014 제8회 아르떼 라구나 프라이즈 25세 이하 부문 입상, 베니스, 이탈리아

전시

2023 《미미-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한국

2023 《에버레버 아트 프로젝트》, 오뉴월 이주현, 서울, 한국

2023 《유동관측》, 유명공간, 서울, 한국

2023 《지금, 바로 여기》, 갤러리그림손, 서울, 한국

2021 《을지 아트페어 프라이즈》, 을지트윈타워, 서울, 한국

2021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사람》, 갤러리 화이트원, 서울, 한국

E-mail tuckde066@naver.com

Instagram @choroknaraa

작업 노트

나는 수많은 타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부터 동료, 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강아지 그리고 어제 아침에 먹다 남은 파 쪄가리까지. 이들은 모두 나와 공존하는 타자들이다. 나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바라본다.

그가 손에 낀 어린이용 반지를 보고, 나는 가끔 유치한 물건에 열광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두 형제가 절하는 모습을 보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나의 종교가 나와 맞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우연히 계단처럼 잘려진 바나나를 보고 웃긴다며 사진을 찍었다. 별것 아닐 수 있는 장면을 찍은 나는 엉뚱한 면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발견한 나의 자아는 섬유 사이로 빠져나가 그림 너머에 존재한다. 따라서 관람자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그린 이와 가까워질 수 없다. 만약 관람자가 너머의 공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그림을 거쳐야 한다. 각각의 작업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타자와 조우하기 위해 설치한 문발과도 같다. 문발 작업은 주체와 타자를 분리함과 동시에 너머의 공간에서 상호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로써 작동한다.



〈주먹 왕〉, 2024. 마에 아크릴릭, 44x42cm. 한국.



〈형제〉, 2024. 마에 아크릴릭, 91.5x122.5cm. 한국.



〈바나나 계단〉, 2024. 마에 아크릴릭, 61.5x60cm. 한국.



〈파 혼자〉, 2024. 마에 아크릴릭, 44x42.5cm. 한국.



〈울챙이 배〉, 2024. 마에 아크릴릭, 40x59cm. 한국.



〈철조망 필터〉, 2024. 마에 아크릴릭, 91x60cm. 한국.

작업 노트 1

기억에 남아 있는 잔상의 분위기를 회화로 나타낸 작업 시리즈이다. 각각의 작업은 일상에서 촬영한 한 개의 사진을 확대하고, 확대한 여러 부분을 합성하여 만든 결과물을 회화로 옮겼다.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한 사진은 저 해상의 이미지로 어렴풋한 과거의 기억과 맞닿아 있다.

‘확대 합성’ 한 결과물 이미지는 디지털 매체로서 납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납작한 이미지는 회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기억과 그에 담긴 감정을 상기시키는 실존하는 물체로 전환된다.



〈자세히 들여다 본 까치〉, 2023. 마에 수채, 45.5x53cm, 한국.



〈퇴근〉, 2024. 마에 수채, 53x45.5cm. 한국.



〈일산〉, 〈처음처럼〉, 〈6시의 장학금〉, 〈철원 막국수〉, 2024. 마에 수채, 14x14cm. 한국.



〈조개구이〉, 2024. 마에 수채, 72.7x50cm. 한국.



〈엄마〉, 2023. 마에 수채, 45.5x45.5cm. 한국.



〈언제라도〉, 2023. 마에 수채, 14x14cm. 한국.



〈가위손〉, 2023. 마에 수채, 14x14cm. 한국.



〈월미도〉, 2023, 마에 수채, 45.5x53cm, 한국.



〈우연〉, 2023. 마에 수채, 72.7x90.9cm. 한국.



〈파밤〉, 2023. 마에 수채, 60.6x45.5cm. 한국.



〈거름〉, 2023. 마에 수채, 45.5x53cm, 한국.

나라면 밖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 어두컴컴한 그 동네에서 가장 밝은 곳은 편의점뿐이었다. 나는 편의점 밖에 있는 벤치에 소심하게 앉아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읽었다. 이곳은 서울과 다르게 허허벌판에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 코를 찌르는 그 냄새와 뒤통수 너머로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험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책에 집중 못 한 지 20분쯤 되었다. ‘이 정도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엄습해 오는 공포감과 소름 끼침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무작정 주변을 걸었다. 그 밤에 혼자 정처 없이 걷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 최대한 시선은 아래에 두고 똑바로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거름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에 멈추게 되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모종이 모여 있는 밭이었다. 대략 10줄 정도 되는 밭에 모종이 열 맞춰서 있는 모습이 양증 맞아 사진으로 남기고, 잠깐 멍때리고 바라보았다. 그러다 한 시간 정도 거름 냄새를 맡고 서성이는 스스로가 한심해서 뭐라도 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 있었던 것은 육교와 무섭게 달리는 트럭 몇 대 그리고 편의점 벤치였다. 무슨 동네가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을 수가 있는지 화가 났고,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든 A를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을 때쯤 전화가 왔다. “이제 들어와도 돼.”

A 집에 들어가니 내 옷은 거름 냄새로 뒤덮여있었다. 마치 고깃집에서 3시간이나 식사하고 나온 사람의 옷에 깊게 배인 고기 냄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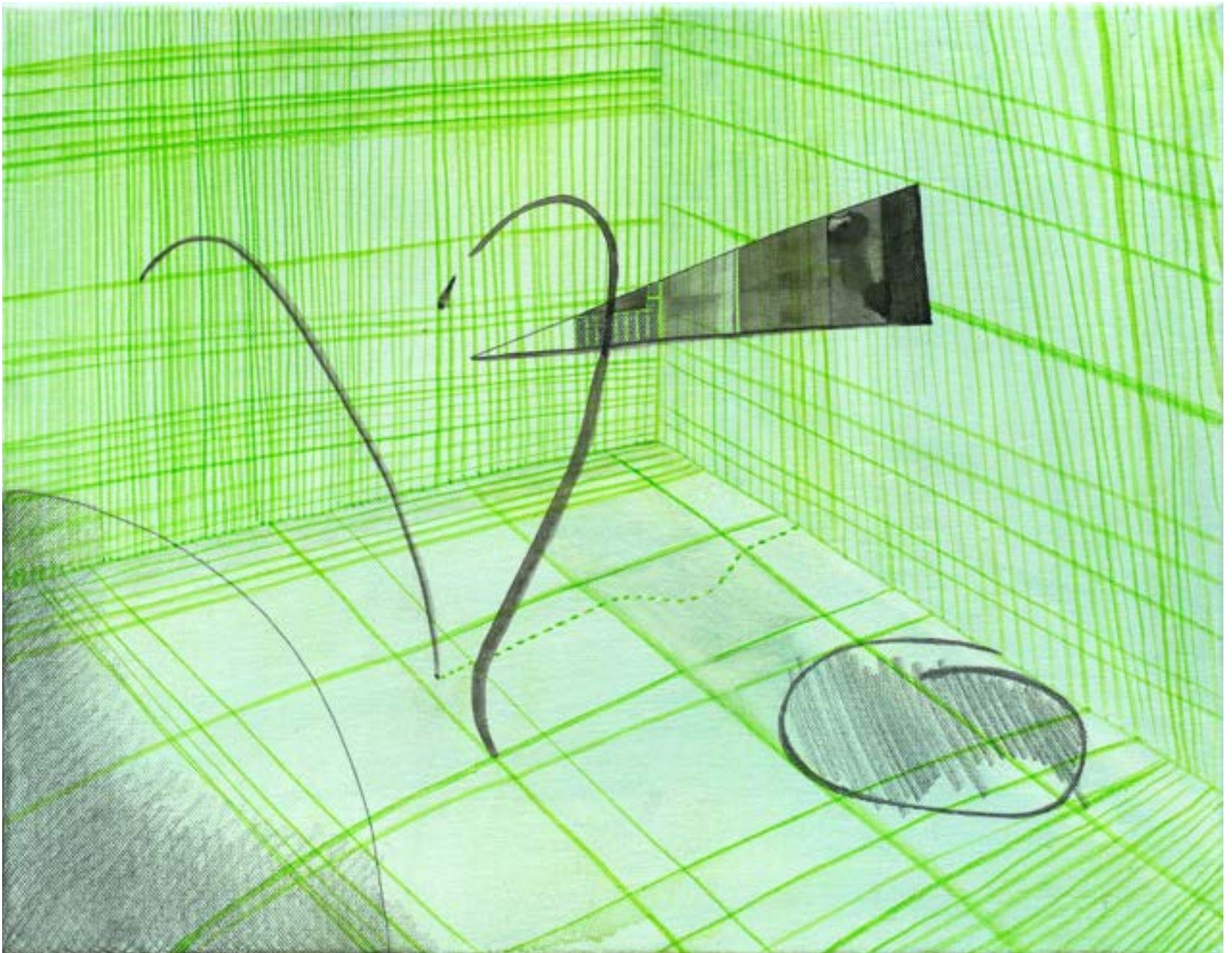


《미미-진》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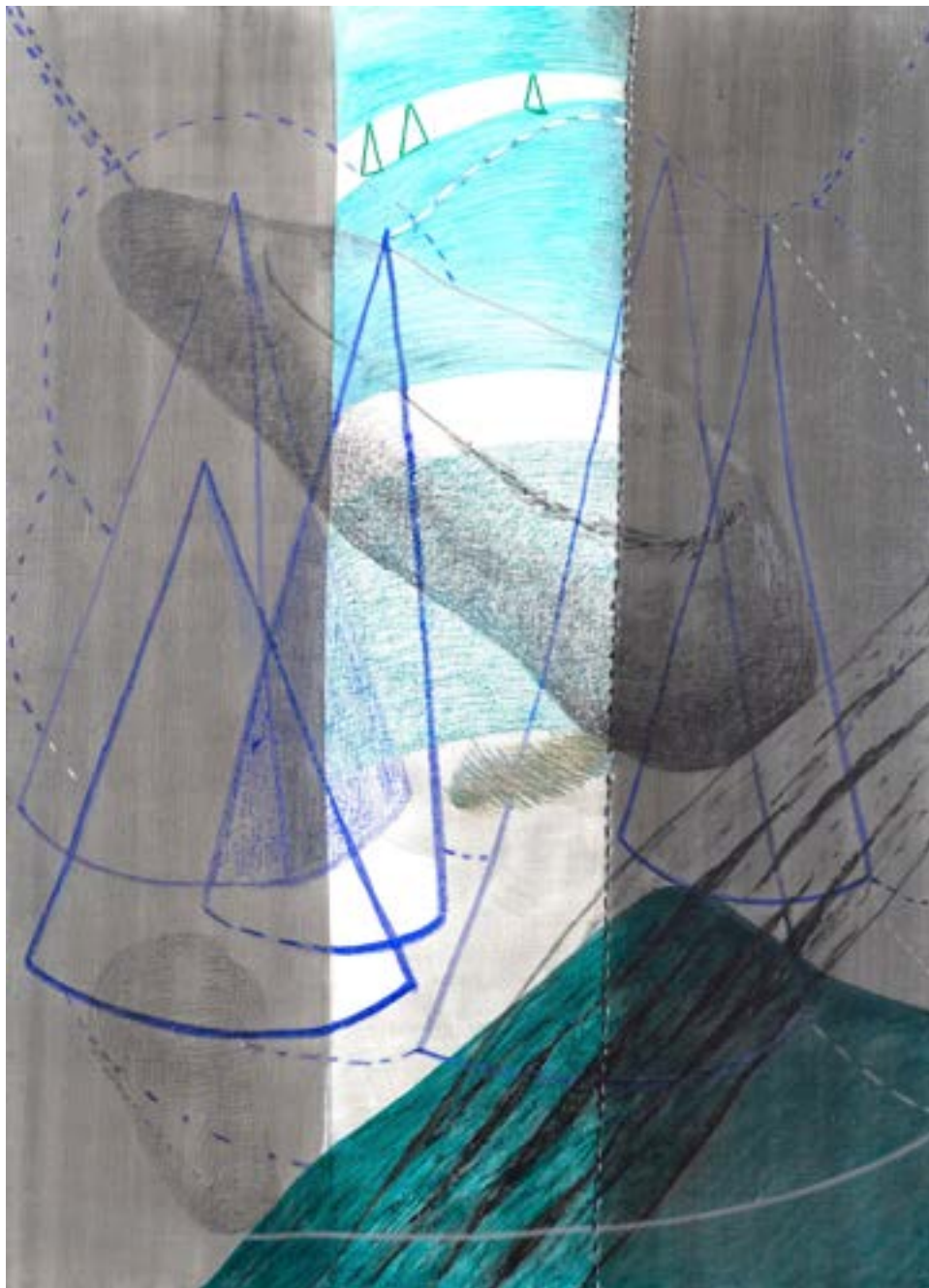


작업 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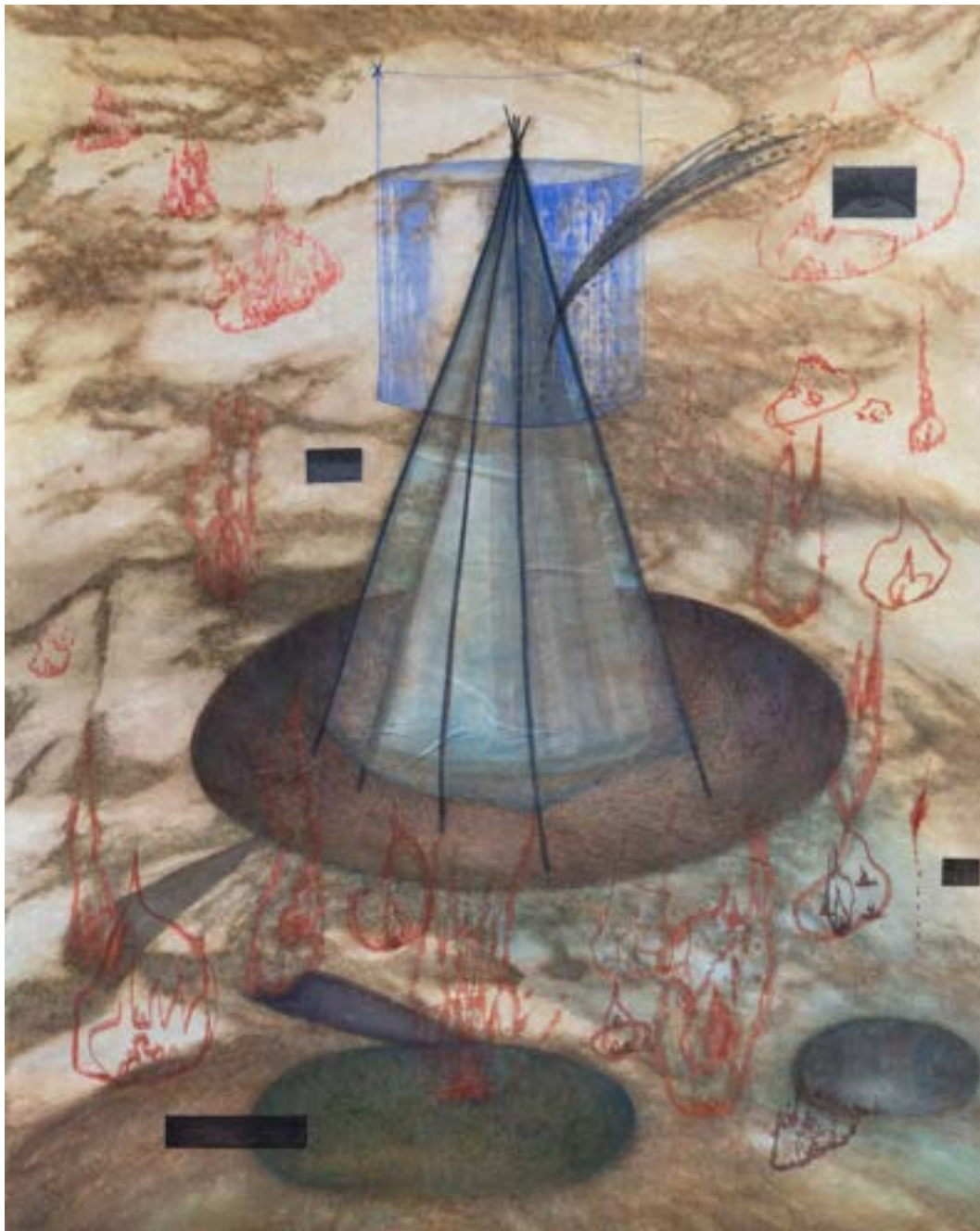
일상 속 경험이나 순간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진실은 왜곡되고, 감정은 치우친다. 감정은 사족이 붙어 몸집이 부풀어 있기도 하고, 날카로워질 때도 있지만 그림으로 옮길 때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단순한 도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형과 반추상적인 여러 형상은 편집되어 나타나는 등장 사물이자 개인의 서사를 가려주는 장치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상을 적은 일기는 장치 뒤에 숨겨져 있다.



〈그냥 해〉,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연필, 40.9x53cm. 한국.



〈벌레 먹은 나무에 엉덩이 세 번 붙이기〉, 2023. 캔버스에 유화 물감, 오일파스텔, 100x72.7cm. 한국.



〈늑늑한 손가락들〉, 2023. 종이에 수채 물감, 90.9x72.7cm. 한국.



《유동관측》 전시 전경



〈1주년 현장: 비 올 때만 우는 개구리〉, 2023. 비단에 수채 물감, 40.9x31.8cm. 한국.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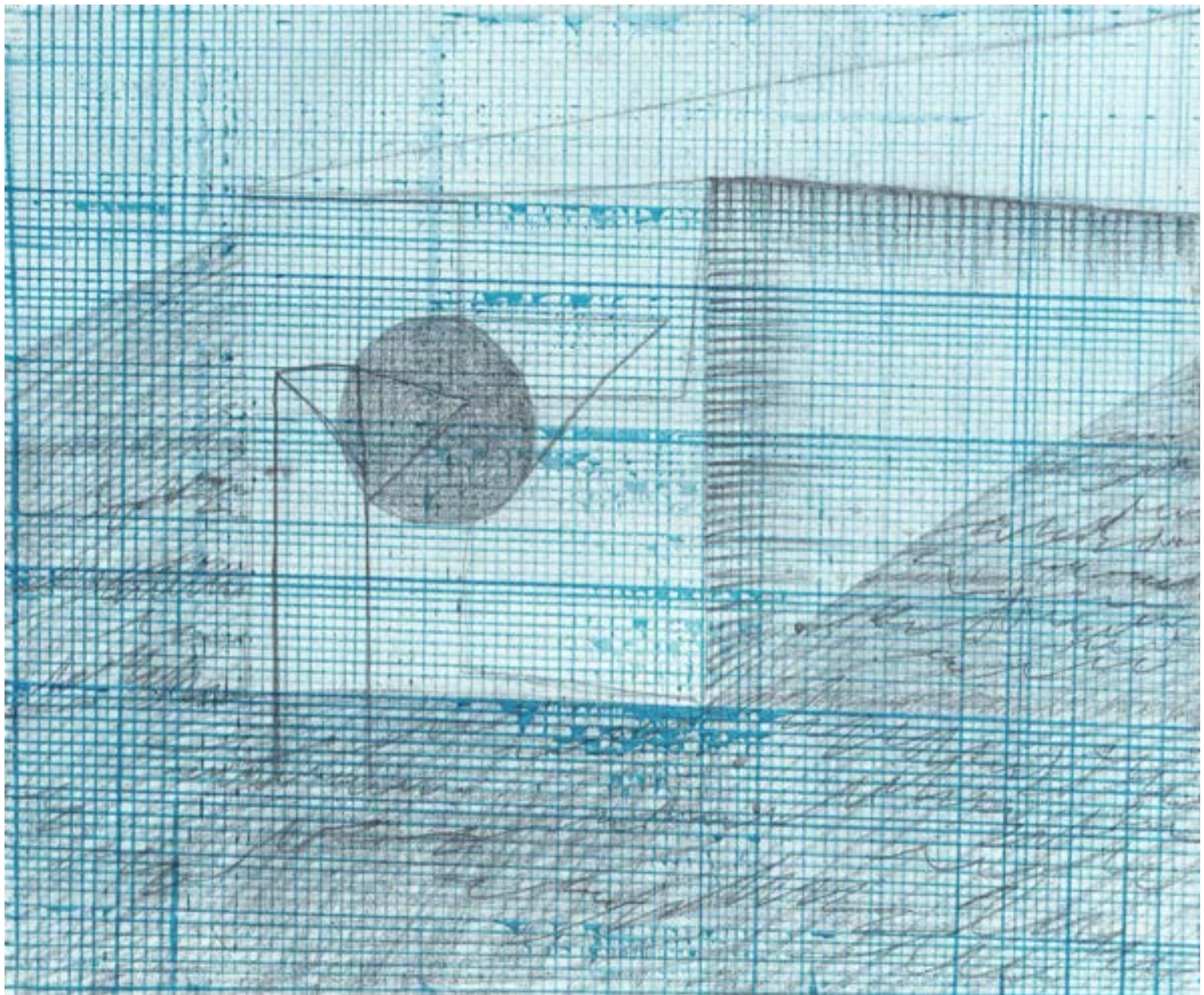
〈떨어진 핏조각〉, 2023. 종이에 오일파스텔, 색연필, 75x40cm. 한국. (우)



〈멤도는 총돌〉, 2023. 종이에 유화 물감, 오일파스텔, 90.9x65.1cm, 한국.



〈동그란 털과 벚꽃〉, 2023. 캔버스에 유화 물감, 오일파스텔, 53x40.9cm.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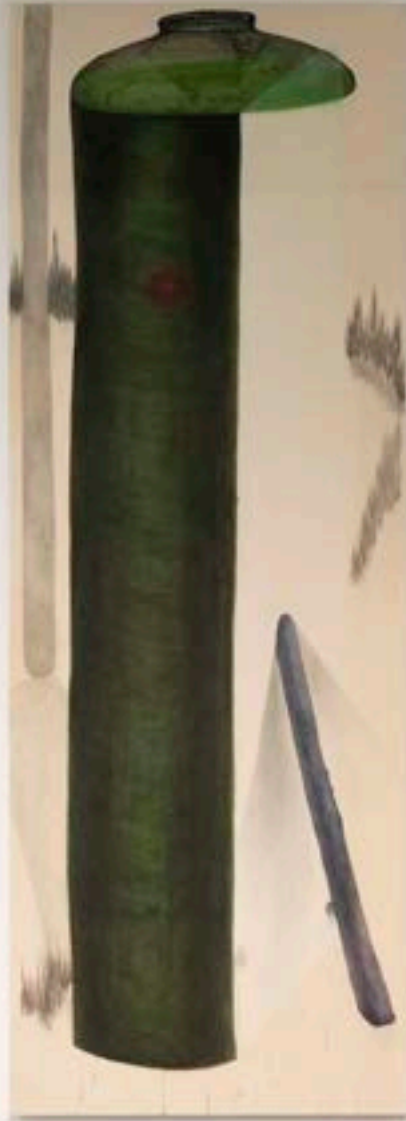
〈3월 중순 금요일〉, 2023. 캔버스보드에 수채 물감, 연필, 45.5x53cm. 한국.



〈옆으로 비 맞기〉, 2023. 종이에 수채 물감, 연필, 60.6x90.9cm,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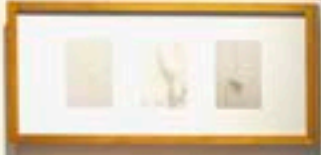


〈확신의 광장〉,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72.7x90.9cm, 한국.



〈독약을 먹은 멧든 나뭇가지〉, 2023, 종이에 수채 물감, 연필, 182x65cm,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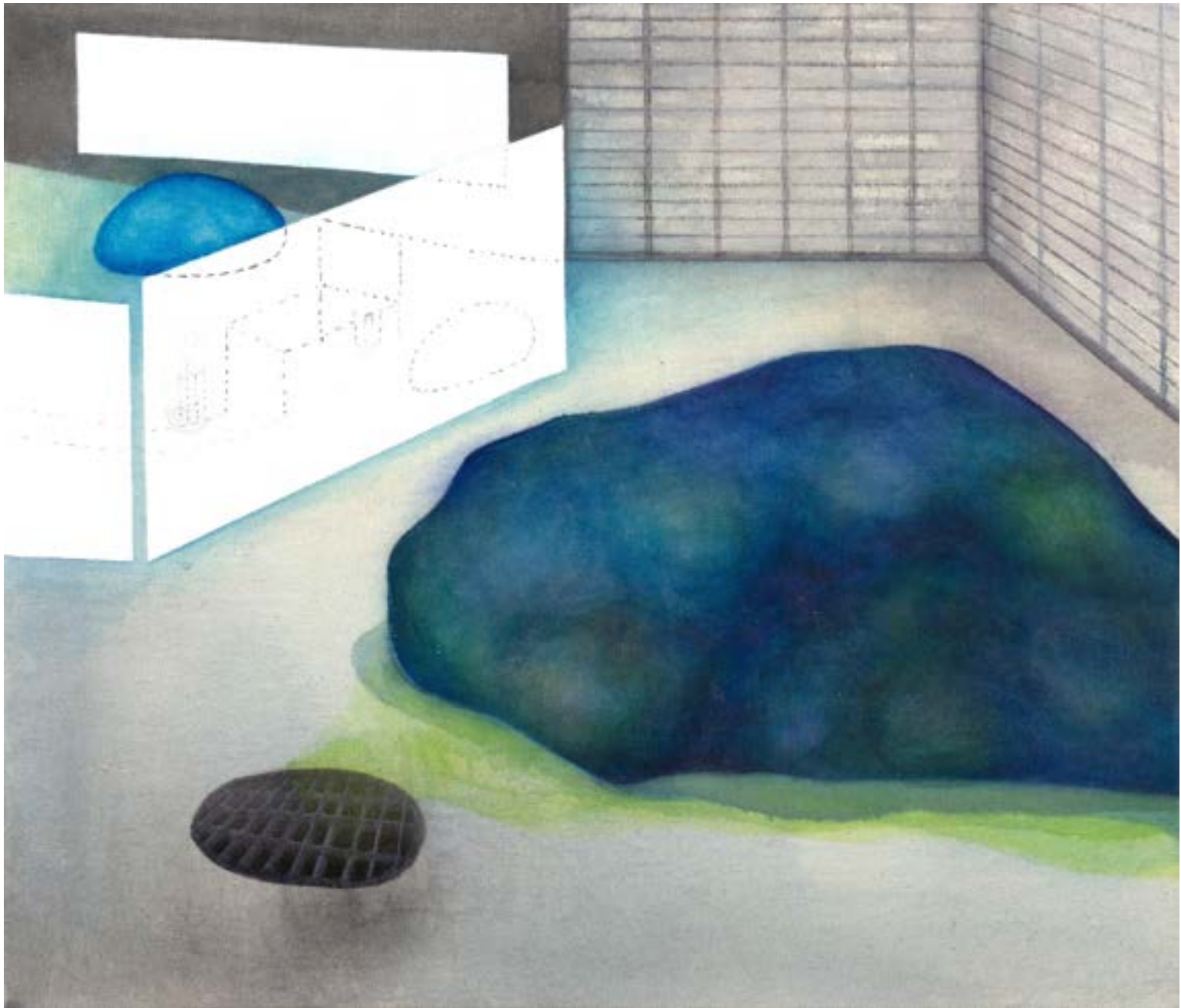
〈떠다니고, 간직하는〉,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과슈, 162,2x130,3cm.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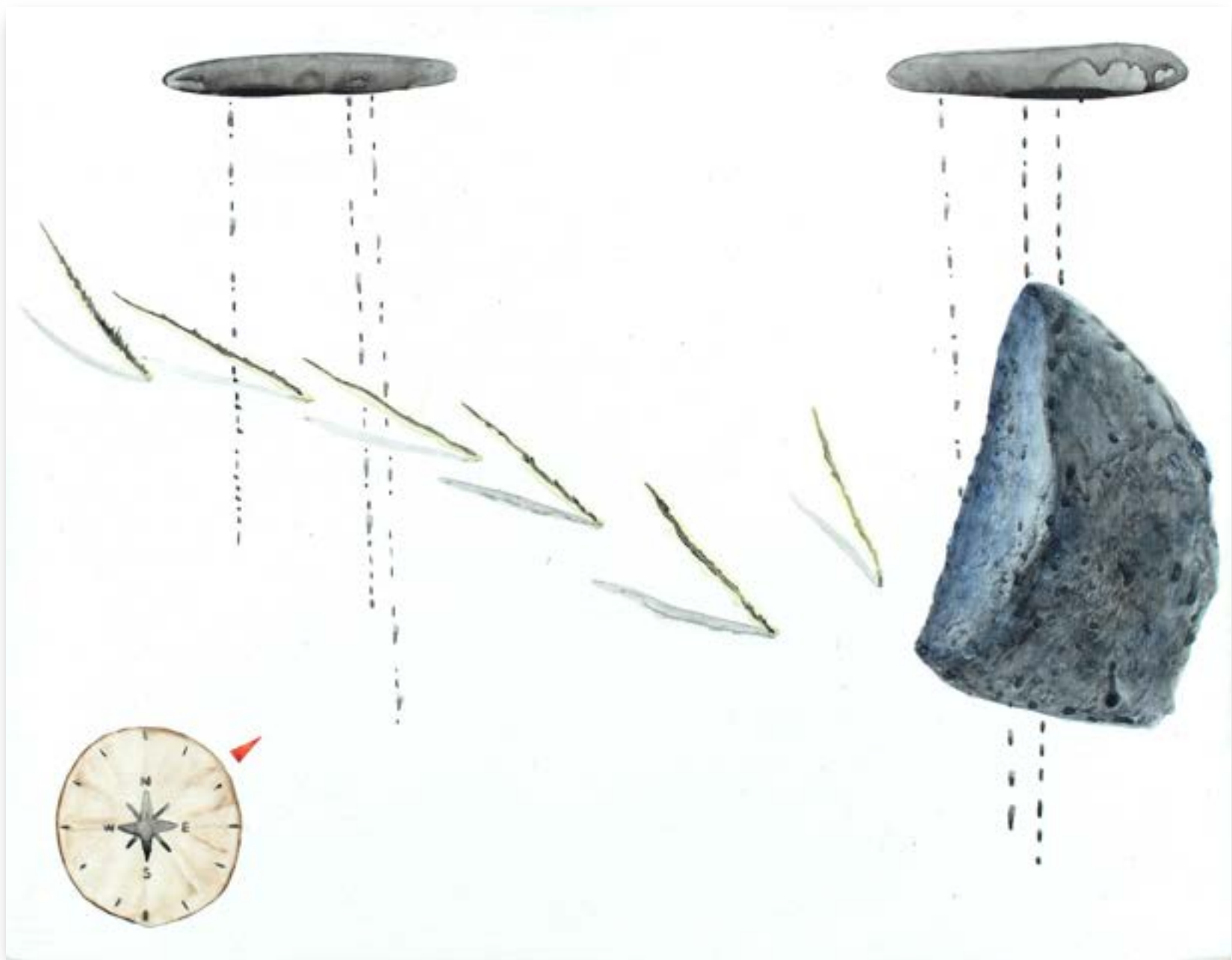
〈긍정 박수 다섯 번〉, 2023. 패널에 혼합재료, 90.9x60.6cm. 한국.



〈우천 시 행사 취소〉,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연필, 41x52.5cm, 한국.



〈슬픔의 삼각형〉,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45.5x53cm.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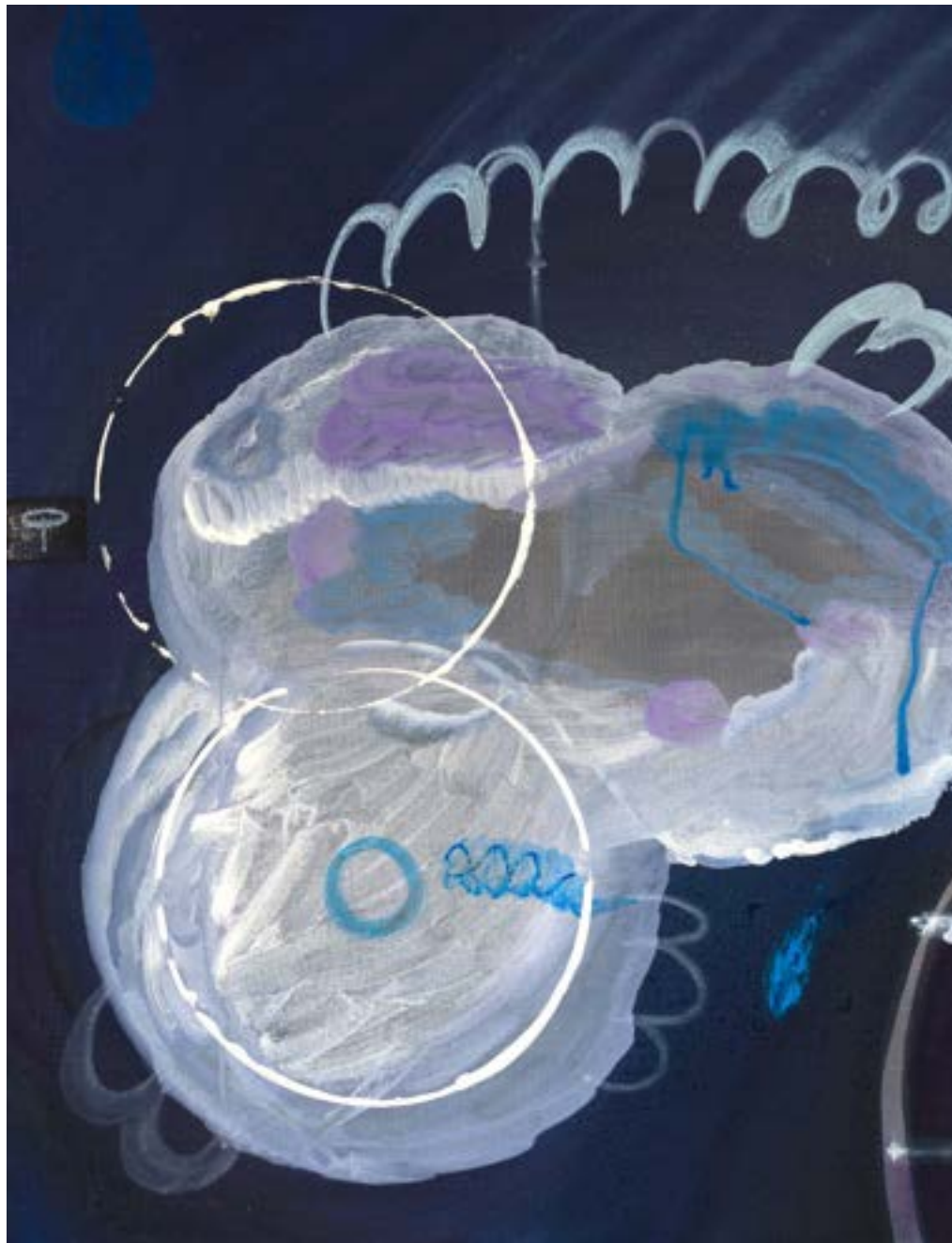
〈종이그림자방향실험〉, 2023. 패널에 수채 물감, 27.3x34.8cm. 한국.



〈혼자 노는 법〉,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64.5x50cm. 한국.



〈감 떨어지는 조명〉,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130.3x80.3cm. 한국.



〈천사들의 소주잔〉, 2023. 캔버스에 수채 물감, 64.5x50cm. 한국.



〈착한 일 기차〉, 2023. 판넬에 수채 물감, 오일 파스텔, 유리타일, 36.5x51cm, 한국.



〈작당모의〉, 2023. 캔버스에 유화 물감, 오일파스텔, 162.2x112.1cm. 한국. (좌)

〈착한 일 기차〉, 2023. 판넬에 수채 물감, 오일 파스텔, 유리타일, 36.5x51cm. 한국. (우)